

C형간염 인식도 조사결과 및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센터 의료감염관리과 김성남, 안영서, 박현정, 이형민*

KSOI 이시원

*교신저자 : sea2sky@korea.kr, 043-719-7580

초 록

C형간염은 혈액매개감염병으로, 급성기에 70%는 무증상으로 조기 인지가 어렵고, 우리 국민의 C형간염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C형간염은 효과적인 치료제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며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C형간염 조기발견을 위해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식도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남녀(일반인) 1,000명 및 수도권에 근무하는 내과계열 의사, 간호사(의료인) 12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조사 방식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C형간염 인식 관련 일반인의 C형간염 인지도는 34.0%로 2009년(10%)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A형간염(72.8%), B형간염(79.3%) 등 다른 간염 질환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경우에도 C형간염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한 경험은 39.2%로 낮은 편이었다. C형간염 예방 행태 관련, 평소 다른 사람과의 개인위생용품(면도기, 손톱깎이, 칫솔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의료인으로부터 무면허 시술(주사, 침, 문신, 피어싱 등)이 17.9%로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항목 위주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국민들이 C형간염 검진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널리 배포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2019년 수립된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2030년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 목표에 발맞추어 우리나라도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것이다.

주요 검색어 : C형간염, 인식도, 체크리스트, C형간염 조기발견

들어가는 말

C형간염은 C형간염 바이러스(Hepatitis C virus, HCV) 감염에 의한 급·만성 간질환으로 주사기 공동 사용, 수혈, 혈액투석, 성접촉, 모자간 수직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으로 전파된다. 2015년과 2016년 의료기관의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 발생 사건은 전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C형간염은 소독하지 않은 바늘이나 침, 오염된 기구로 문신, 피어싱을 하는 과정 등에서 감염될 수 있으며, 손톱깎이와 면도기 공동 사용을 통해서도 감염 위험이 있다. C형간염은 급성기에 70%는 무증상으로

조기 인지가 어려워 질병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치료를 또한 낮다. C형간염은 국내 간암 원인 중 두 번째로 많으며, 만성간염 환자는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방치 시 의료비 부담이 크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은 없으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치료하여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C형간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 개선 및 이해를 증진하고자 2019년 7월 24일부터 8월 19일까지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만19세 이상 80세 미만 성인 남녀(일반인) 1,000명 및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근무하는 내과계열 의사,

간호사(의료인) 12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표 1). 조사내용은 간염 인식, C형간염 예방 행태, C형간염 예방 홍보로 구성되었고,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프로그램(18.0)으로 전산처리 하였다.

몸 말

1. C형간염 인식 및 인지도

C형간염 인식도 조사 분석결과, 일반인의 C형간염 인지도는 34.0%로 2009년 국립암센터 조사에서 10% 수준으로 나타났던 결과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A형간염(72.8%), B형간염(79.3%) 등 다른 간염 질환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그림 1). 특히, 20대(15.7%), 70대(18.0%), 학생층(19.2%), 중졸 이하의 학력(14.8%), 200만원 미만 소득층(20.9%) 등의 집단에서 C형간염의 인지도가 낮았다. 20대와 학생층에서 C형간염의 인지도가 낮은 이유는 젊고 건강한 연령대로

질병에 관심이 낮은 것이 주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C형간염이 일상적인 생활행태의 부주의로 감염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20대와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인지도 제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형간염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C형간염이 ‘위험한 질병’이라는 인식(85.6%)은 상당히 높으나, C형간염의 증상(23.5%), 감염경로(29.2%), 치료법(19.8%) 등의 구체적인 질병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막연하게 알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질병 정보를 알려주고 C형간염 예방에 대한 인식과 행태에 대한 변화를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C형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어 위험하다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경우는 58.3%에 불과했으며, C형간염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접종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도 42%만이 인지하고 있어 C형간염의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2. C형간염의 감염경로 및 생활행태

일반인들은 평소 질병예방을 위한 노력으로 건강검진,

표 1. 응답자 특성

일반인			의료인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전체	1,000	100.0	전체	120	100.0	
성별	남성	506	50.6	직업	의사	60	50.0
	여성	494	49.4		간호사	60	50.0
연령	만19~29세	167	16.7	근무 지역	서울	61	50.8
	30대	176	17.6		경기	41	34.2
	40대	206	20.6		인천	18	15.0
	50대	210	21.0	진료 과목	내과	65	54.2
	60대	152	15.2		소아청소년과	28	23.3
	70대	89	8.9		가정의학과	27	22.5
지역	서울	196	19.6	병원 규모	상급종합병원	30	25.0
	인천/경기	307	30.7		종합병원	26	21.7
	대전/충청/세종	102	10.2		병원	34	28.3
	광주/전라	98	9.8		의원	30	25.0
	대구/경북	101	10.1				
	부산/울산/경남	155	15.5				
강원/제주	41	4.1					



그림 1. 간염 질환 인지도

위생관리, 운동, 예방접종 등의 순으로 파악되었으며, 특히 건강검진의 경우, 40대 이후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건강검진 수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40대 이후 건강검진 시 C형간염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평소 다른 사람과의 개인위생용품(면도기, 손톱깎이, 칫솔 등)을 공유하고 있다는 응답이 46.8%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비의료인으로부터 무면허 시술(주사, 침, 문신, 피어싱 등)이 17.9%로 나타나 생활행태에서도 감염예방이 철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어 일반인들이 C형간염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형간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 시 '감염경로', '예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문신, 피어싱, 귀고리 등의 시술과 관련하여 판매자 및 종사자에 대한 감염예방 수칙의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여 C형간염의 감염경로, 예방 등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C형간염 항체검사에 대해 검사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로 나타났으며, C형간염의 국가검진 항목 포함 필요성은 일반인 87.6%, 의료인 78.3%가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C형간염의 국내 유병률은 1% 미만으로 높지 않은 편이나,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한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통해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C형간염 퇴치를 위해 질병의 특성 등을 반영한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그림 2).

3. C형간염의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질병관리본부의 'C형간염 예방홍보 및 캠페인'을 접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12.4%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만족한다는 응답이 59.3%로 파악되었다. 접촉 경로는 TV/라디오(54.8%), 병원/약국(41.4%), 인터넷뉴스(40.8%) 등을 통해 C형간염을 인지하였으며, C형간염의 위험성, 감염경로 및 예방 관련 인식 변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의료인의 경우는 C형간염 홍보·캠페인 접촉 경험자는 17.5%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만족도는 90%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요 접촉 매체를 설문한 결과(1+2순위 기준), 인터넷뉴스, 기사가 47.6%, TV, 라디오 42.9%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C형간염 홍보 및 캠페인에 있어 일반인들은 C형간염 감염경로 및 예방(72.4%), C형간염의 증상(35.0%), C형간염의 위험성(34.6%) 순으로 중요하게 인식했으며, 의료인들은 C형간염 감염경로 및 예방(93.3%), C형간염 위험성(64.2%)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3, 4).

C형간염 예방 홍보 관련, 주로 매스미디어 중심으로 예방 홍보 및 캠페인을 접하고 있었으며, 질병의 사후 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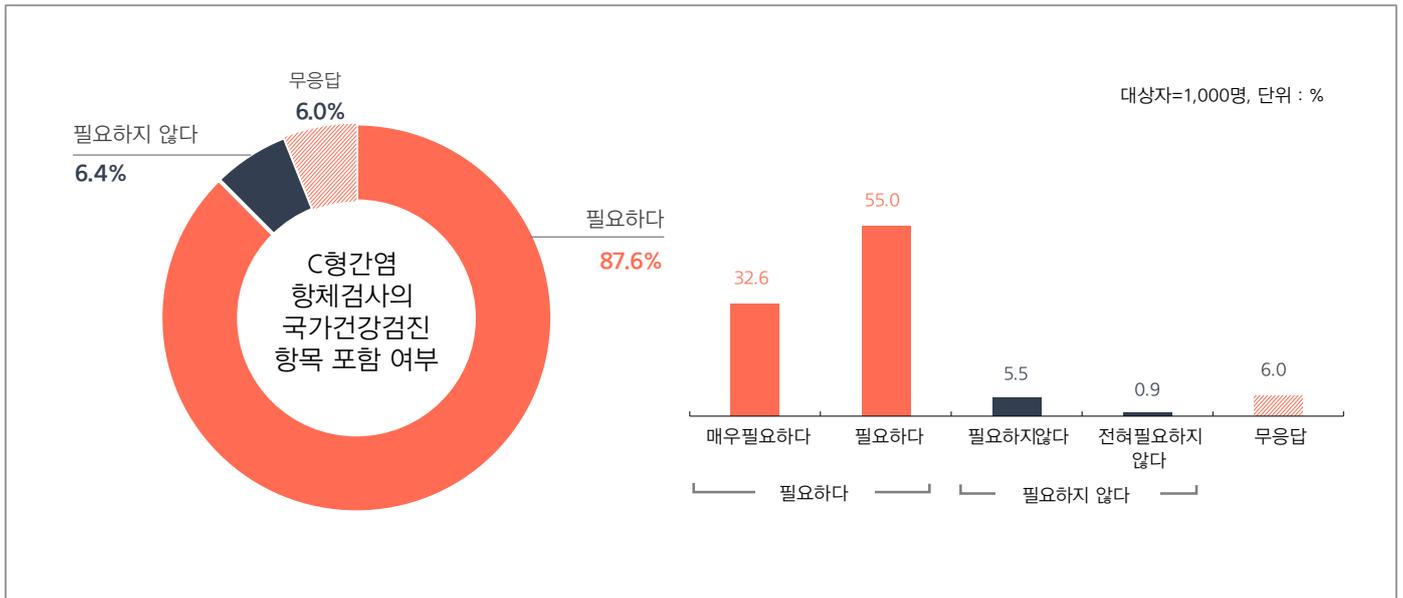


그림 2. C형간염 항체검사의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여부

대한 인식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나 예방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으며, 방치 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어 의료비 부담이 크므로 C형간염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의 중요성과 예방 홍보 및 캠페인에 감염경로 및 예방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4. 의료인의 C형간염 치료 및 예방에 대한 인식

의료인의 경우에도 C형간염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한 경험은 39.2%로 낮은 편이었다. C형간염의 증상, 감염경로에 대한 의료인의 인지도는 90% 이상으로 높으나, 치료법에 대한 인지도는 75.0%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은 C형간염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감염가능성(95.0%)과 치료가가능성(62.5%) 측면에서 둘 다 위험하다는 인식이 높으나, 특히 감염가능성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더 높게 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C형간염 자가 체크리스트 개발

인식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일반인이 C형간염 감염 관련하여 실제 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항목 위주로 자가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C형간염 검진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C형간염 자가 체크리스트

- ① 공공장소(목욕탕, 찜질방, 네일아트점 등)에서 공용 손톱깎이 등을 사용한 적이 있다
- ② 이발소, 미용실 등에서 제공하는 면도를 받은 적이 있다
- ③ 액세서리 판매점 등에서 피어싱(귀, 눈썹, 코 등 뚫기)을 한 경험이 있다
- ④ 눈썹, 아이라인, 몸 등에 문신 시술한 경험이 있다
- ⑤ 의료기관 외에서 정맥주사, 주사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⑥ 의료기관 외에서 침, 부항치료 등을 받은 적이 있다
- ⑦ 혈액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험이 있다
- ⑧ 1991년 이전에 수혈이나 장기이식을 받은 적이 있다
- ⑨ 비고정 성 파트너와 콘돔 없이 성 접촉을 한 적이 있다

※ 위 항목에서 '네'라고 대답한 개수가 1개 이상이면 **“C형간염 검진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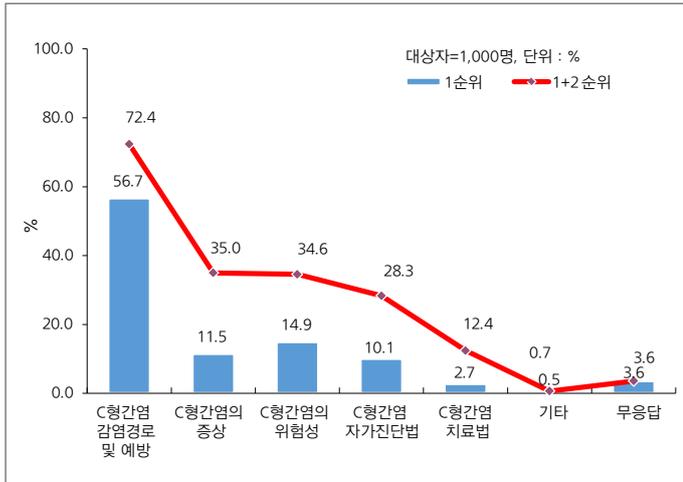


그림 3. C형간염 예방홍보 및 캠페인 시 중요정보(일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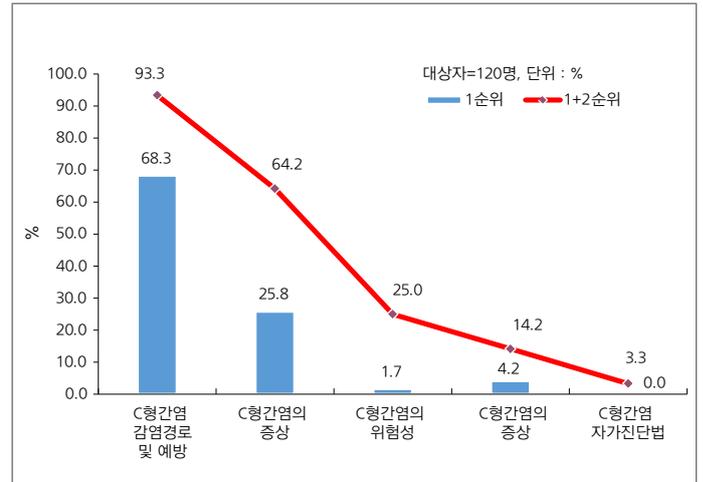


그림 4. C형간염 예방홍보 및 캠페인 시 중요정보(의료인)

맺는 말

C형간염은 제3군감염병(2020년부터 제3급감염병)으로 2017년 6월부터 전수감시체계로 운영되며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증상이 없어 인지가 어려운 C형간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전파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30년까지 바이러스성 간염 퇴치' 목표를 천명하였고 각 국가별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기준 C형간염 환자수는 7,100만 명이며, 신규환자수는 175만 명이며, 10만 명당 23.7명이 신규 발생했다. 또한 매년 740만 명이 C형간염으로 사망하며, 대부분 간경변, 간암으로 사망했다(WHO, 2017).

〈 국제 간염 전략 목표 〉

- 간염의 신규발생을 2020년까지 30% 감소, 2030년까지 90% 감소
- 간염에 의한 사망을 2020년까지 10% 감소, 2030년까지 65% 감소
- 현재 간염환자의 5%만 진단, 1%만 치료 받는 것을 2030년까지 90% 진단,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80%가 치료를 받는 것을 목표

우리나라는 올해 수립된 '국가 바이러스성 간염 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질병인식 및 예방 관리를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감염확산 차단 및

감염관리 역량 강화 등을 통하여 C형간염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 활동의 선순환 고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침묵의 질병 C형간염으로 인한 질병부담과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C형간염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추진하고, C형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제공과 예방 교육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 바이러스성 간염을 주요 공중 보건 위협(major public health threat)에서 제거하는데 우리나라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① 이전에 알려진 내용은?

C형간염은 혈액매개감염병으로 초기감염 후 약 70~80%의 환자는 증상이 없어 조기 인지가 어렵고, 질병에 대한 낮은 인지로 치료율 또한 낮다. 간경변, 간세포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아 방치 시 의료비 부담이 크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은 없으나, 효과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어 완치가 가능하므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 치료하여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② 새로이 알게 된 내용은?

C형간염 인식도 조사결과, 일반인의 C형간염 인지도는 34.0%로 2009년(10%)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A형간염(72.8%), B형간염(79.3%) 등 다른 간염 질환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의료인의 경우에도 C형간염 환자를 치료하거나 간호한 경험은 39.2%로 낮은 편이었다. 아울러, 일반인 87.6%, 의료인 78.3%가 국가건강검진 항목에 C형간염 포함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③ 시사점은?

C형간염은 조기 발견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지만, 일반국민의 C형간염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는 낮은 편으로 지속적인 인식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일상생활 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검토 등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케이에스오아이(주), C형간염 인식도 조사 및 예방 홍보물 제작 최종결과보고서, 2019.
2. 질병관리본부, C형간염 관리지침, 2017.
3. WHO, GLOBAL HEALTH SECTOR STRATEGY ON VIRAL HEPATITIS 2016–2021.

Abstract**Hepatitis C Awareness Survey Results and the Development of a Self Checklist**

Kim Sung nam, Ahn Yeong Seo, Bahk Hyun Jung, Lee Hyung Min

Division of Healthcare Associated Infection Control, Center for Infectious Disease Surveillance & Response, KCDC

Lee Si Won, KSOI

Hepatitis C is a blood-borne infection. In its acute phase, 70% of the symptoms are asymptomatic and, therefore, difficult to detect. Furthermore, the level of hepatitis C awareness among the general Korean population is low. Because hepatitis C is curable by direct-acting antivirals (DAAs) and early detection is very important, research projects to improve the public's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hepatitis C are critical. This study's 'Hepatitis C Awareness Survey' collected data from 1,000 adult males and females ages 19 to 80 across Korea, as well as that of 120 medical professionals (physicians and nurses) work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study investigated the recognition rate of hepatitis C, the prevention behavior of hepatitis C, and the promotion of hepatitis C prevention. The study was conducted from July 24 to August 19, 2019, by the Korea Social Research Institute (KSOI).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 recognition rate of hepatitis C among the general Korean public was 34.0%, a significant increase from 10% in 2009, but the recognition rate was still low compared to recognition rates of hepatitis A (72.8%) and B (79.3%). Even among medical professionals, only 39.2% had treated or cared for patients with hepatitis C. Regarding the prevention behavior of hepatitis C, 46.8% of the non-medical respondents said they often share personal hygiene products (such as razors, nail clippers, and toothbrushes) with others, and 17.9% of the non-medical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y had undergone unlicensed procedures (such as injections, acupuncture, tattoos, and piercings). To understand more about the early detection of hepatitis C, the self checklist was developed based on real-life behaviors that expose people to hepatitis C. This study recommended that the self checklist be distributed widely and utilized effectively to alert the public to the importance of hepatitis C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As part of the 'National Hepatitis Management Plan', established in 2019,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plans to push ahead with an early detection hepatitis C project from 2020. Furthermore, in line with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s (WHO) 2030 goal of combatting viral hepatitis, Korea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ffort to combat hepatitis C.

Keywords: Hepatitis C, Awareness, Self checklist, Hepatitis C early detection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on-Medical Professionals		Cases (P)	Ratio (%)	Medical Professionals		Cases (P)	Ratio (%)
Total		1,000	100.0	Total		120	100.0
Gender	Male	506	50.6	Profession	Doctor	60	50.0
	Female	494	49.4		Nurse	60	50.0
Age Group	19-29	167	16.7	Working Area	Seoul	61	50.8
	30-39	176	17.6		Gyeonggi	41	34.2
	40-49	206	20.6		Incheon	18	15.0
	50-59	210	21.0	Clinical Subject	Internal Medicine	65	54.2
	60-69	152	15.2		Pediatrics	28	23.3
	70-	89	8.9		Family Medicine	27	22.5
Region	Seoul	196	19.6	Hospital Scale	Tertiary Hospitals	30	25.0
	Incheon/Gyeonggi	307	30.7		General Hospital	26	21.7
	DaeJeon/Chungcheong/Sejong	102	10.2		Hospital	34	28.3
	Gwangju/Jeolla	98	9.8		Clinic	30	25.0
	Daegu/Gyeongbuk	101	10.1				
	Pusan/Ulsan/Gyeongnam	155	15.5				
	Gangwon/Jeju	41	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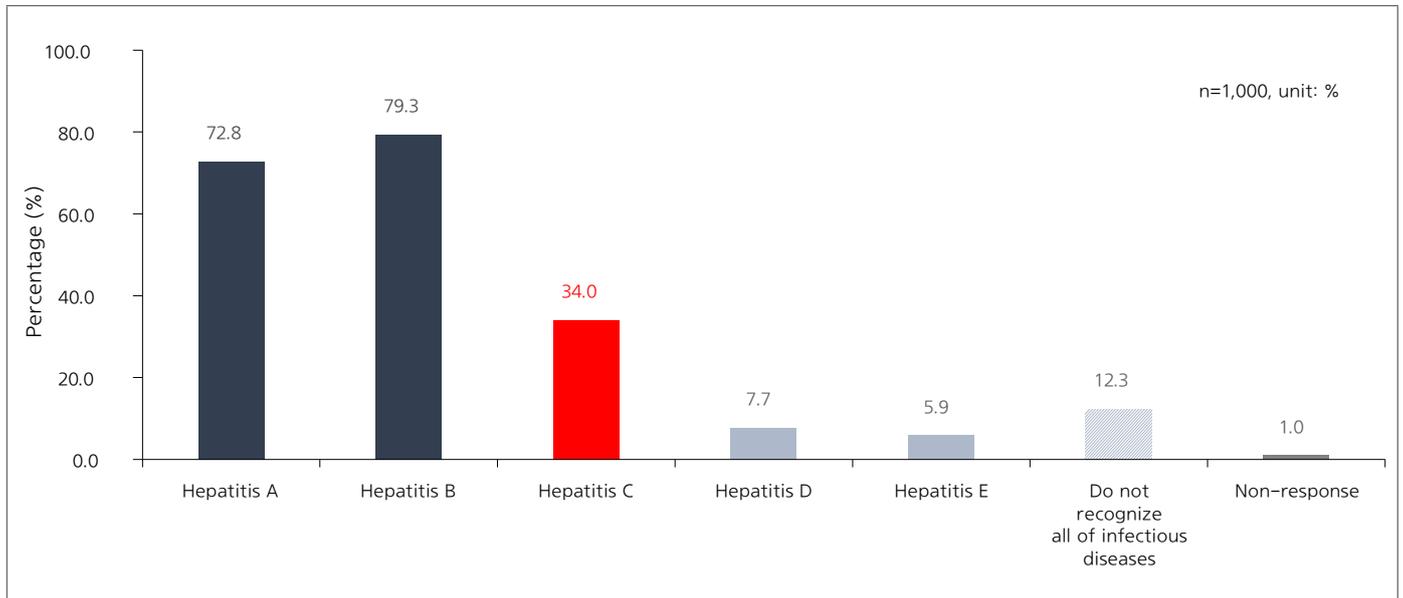


Figure 1. Hepatitis Awaren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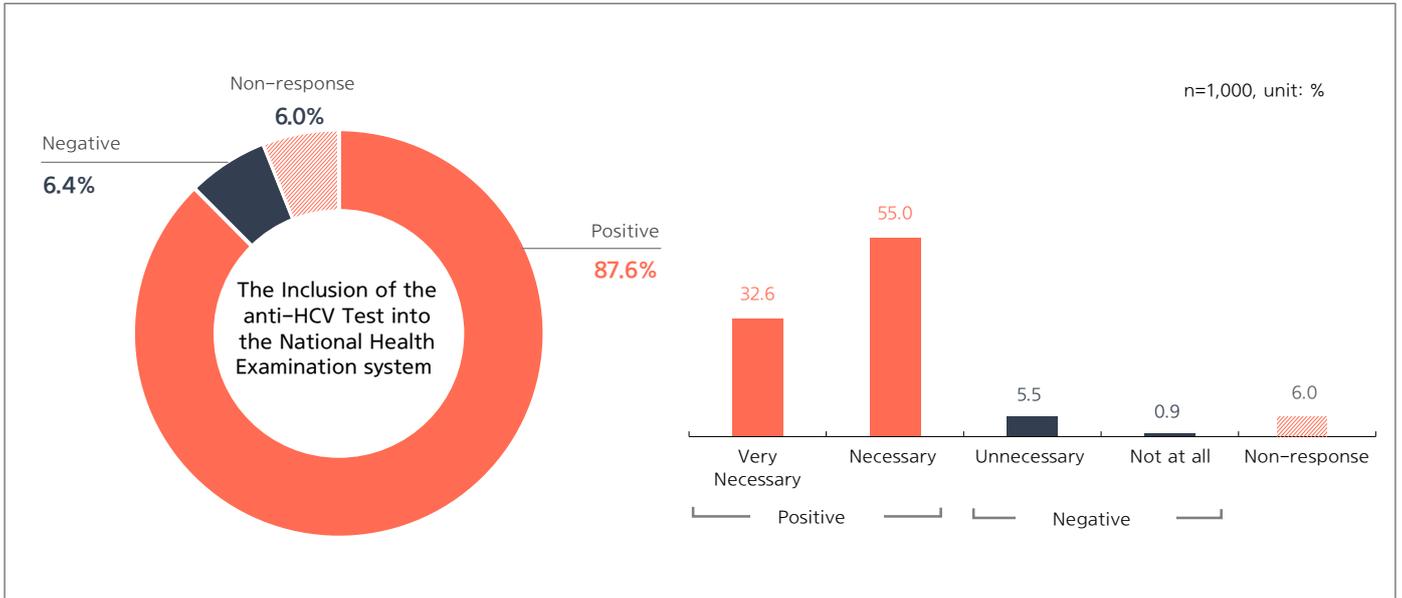


Figure 2. The Inclusion of the anti-HCV Test into the National Health Examination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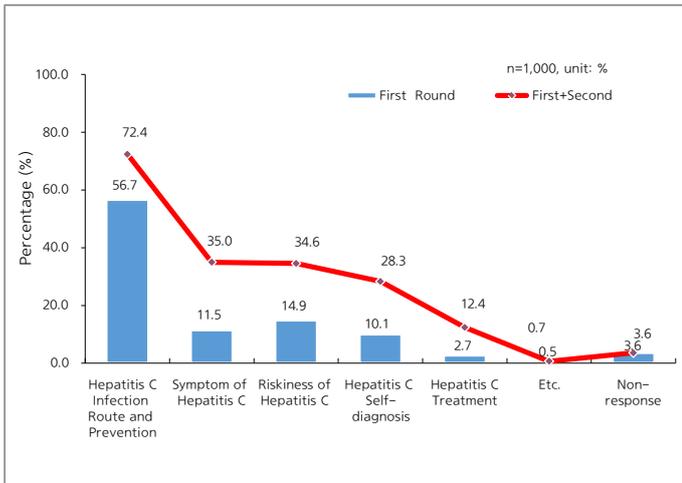


Figure 3. Important hepatitis C information for public relations among non-medical professiona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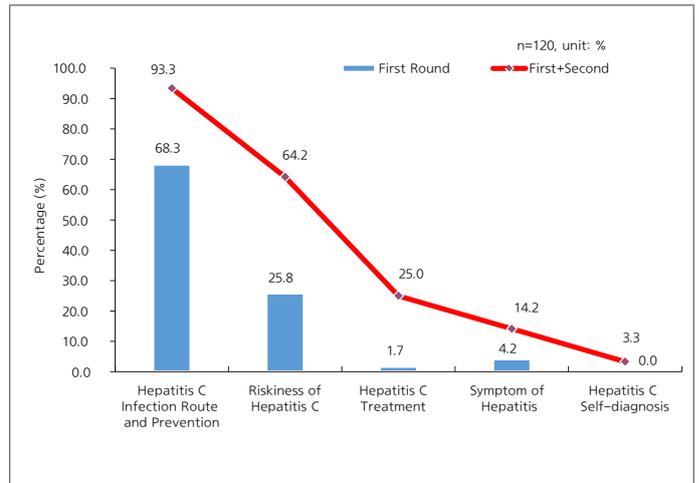


Figure 4. Important hepatitis C information for public relations among medical professionals